



고치현은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꼽히는 시코쿠의 가장 아래에 자리한다. 절경의 대자연과 역사적 위인 사카모토 료마의 흔적이 가득한 시코쿠의 신凑 명소로 급부상중이다. 관광명 소도 각별하지만 을 가을 고치현을 찾는다면 고치현 별상의 별미 '가츠오타타키'가 주인공이 된다. 가츠오 활어를 깊힐 채 가볍게 불에 구워내어 활어회 특유의 식감과 농후한 향까지 담아내니 가츠오타타키를 맛보기 위한 목적인으로 고치현의 찾을 가치는 충분하다.

| 이상직 기자

고치현은 시코쿠지방의 가장 남쪽에 자리한다. 현의 북부에는 시코쿠산지가 늘어서 있으며, 남부는 '도사 만(満)'이라고 불리우는 태평양을 바라보는 활 모양의 해안선에 둘러싸여 있다.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꼽히는 시코쿠에 자리하고, 더군다나 태평양을 마주한 긴 해안선을 가진 만큼 자연환경도 일품이다. 도사만을 따라 서쪽 끝에는 <아이즈리 꽃>, 동쪽 끝에는 세계자작공원에도 지정된 <루로토 꽃>에 더해 시코쿠 제일의 바다풍경으로 꼽히는 <가쓰라하마> 등, 빼어난 자연미에 훈수에서 면 밭치에 있음에도 여전히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절경이 먼저 시선을 유혹하지만 가을의 고치현을 찾는다면 대표 미각부터 즐기는 것이 것이 순서다. 명물은 가츠오 타타키. 가츠오(鰯)는 우리말로 가다랑이라고 하는데, 고치현은 가츠오의 최대 산지이자 가츠오를 활용한 다채로운 요리가 있어 미식가들이 먼저 찾는 명소로 유명새다.

고치현에 있어 가츠오의 위치를 설명하는 말이 있다. 바로 "가츠오는 버릴 것 하나 없는 생선" 이란 말이다. 신선한 활어회로도 즐기고, 살을 말려 갈아내면 시원한 국물을 내는 양념이나 일본요리에서 빠지지 않는 양념인 가츠오부시(가다랑어포)



가츠오 조업 도 모습. 잇폰즈리(一本釣り)로 불리우는 외줄낚시로 낚는다.



조리중인 타타키. 벗장을 태워 표면을 살짝 익혀낸다.

매년 봄
부터 겨울에 접어

드는 11월까지가 어획기간인데, 특히 가을인 10월과 11월이 단연 제철로 꼽힌다. 산란기에 접어 들기 전 삶이 오는데 물과 맛은 물론 식감도 1년 중 가장 각별하여 미식가들은 가을의 가츠오타타키만 고집할 정도다.

가츠오타타키를 즐기면서 요리의 기원을 알아두는 것도 재미다.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설은 여러 가지다. 하나는 어부들의 간식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이다. 가츠오부시가다랑어포를 만들고 남은 고기를 깁질 채 껌치에 끼워 구워먹던 것이 지금의 가츠오타타키로 발전했다는 이야기다. 또 다른 하나는 에도시대 당시 지금의 고치현인 도사(土佐)의 번주(藩主·영주)인 암마우치 카츠토요(山内一豊)가 마음에 식중독이 유방하자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가츠오의 활어회를 금지시켰고, 이에 마을사람들이 번주의 눈을 피해 가츠오의 활어회를 숯불에 살짝 구워 구운 생선처럼 보이게 한 후 즐겼던 것이 품미와 식감이 좋아 고유의 요리로 발전했다는 설도 전해진다.

이름의 유래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타타키'란 일본어로 '두두리다'라는 뜻인데 조리과정을 보면 타타키란 이름이 붙은 이유를 알 수 있다. 신선한 가츠오의 순살을 통째로 잘라내어 깁질 채 가볍게 불에 그을

리고 차운 물에 담가 식히고, 다시 물기를 가볍게 제거하고 마늘과 파, 산초잎 등의 고명에 절이는 과정을 거친는데 이때 손으로 가츠오를 두들기기에 '가츠오를 두드리서 먹는다'는 뜻의 '가츠오타타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고치현 어디든 맛을 수 있는 요리이지만 같은 고치현이라도 지역별로 그 맛이 또 다르다. 고치현 동부에서는 식초, 설탕, 간장을 배합한 삼배초(三杯酢)를 간장 삼아 찍어 먹고, 고치현 중앙부에서는 간장에 생강을 같아 넣어 즐긴다. 고치현을 찾아 가츠오타타키를 즐기지 않다면 고치현을 즐겼다고 말할 수 없으니 고치현 여행에 나섰다면 꼭히 가츠오타타키를 맛볼 것이다.

고치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타타키이지만 고치시 중심가에 자리한 <히로메시장>이 관광객에게 인기다. 히로메 시장은 일식·양식·중식 등 다양한 음식점 약 40점포와 선물가게 및 옷가게 등의 판매점 약 20점포가 함께 집결해 있는 거대한 포장마차촌. 저녁 무렵이면 자리를 가득 메운 인파와 술렁이는 일기로 시끌벅적한 고치의 저녁풍경을 연출하는 곳으로, 히로메 전용 쿠폰을 구입한 후 마음에 드는 포장에서 좋아하는 요리를 주문하여, 아무데도 마음에 드는 자리에서 가츠오타타키를 비롯해 고치지방의 향토음식의 맛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니 꼭히 코스에 넣어봄직 하다.

여행정보

고치현에서는 한국출발 직행편이 없어 인천공항 직행편이 취항중인 기가와현 디카마츠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디카마츠공항에서는 리무진버스를 이용해 JR디카마츠역까지 이동 후 JR철도 특급 시안토에 탑승(약 2시간 10분). JR고치역에서 하차하면 된다. 고치현의 다양한 여행정보는 고치현 공식 관광사이트(www.attaka.or.jp)를 통해 만날 수 있다.



타타키를 비롯한 가츠오 별미를 맛볼 수 있는 히로메시장.

도쿄에서 가장
가까운 비밀상
절경이 기다리는
군마현

群馬県
군마현

www.visitgunma.jp/kr



Rail Pass Topic 간사이 전역을 여행하는 만능티켓, 간사이 스루패스

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매력이다. 간사이국제공항에서 오사카 중심지인 난바를 약 50분에 연결하는 난카이전철 급행 역시 스루패스로 즉시 탑승할 수 있다. 혹 시간이 급하다면 약 35분에 난바에 닿을 수 있는 특급 라피토(500엔 추가)를 선택해도 된다.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간사이 스루패스 한 장이면 해결되는 셈이다.

간사이 스루패스 구입 시 함께 제공되는 가이드북도 유용하다. 대형 노선도를 포함해, 모립코스와 각 지역별 관광정보가 빼곡히 담겨있어 다른 가이드북을 준비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알차다. 여기에 주요 관광지 35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입장권 할인 등의 쿠폰북도 함께 제공되니 교통비도 절약하고 여행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구입은 출발 전 한국 내에서 구입할 경우 대형 여행사 및 일본전문여행사를 통해 가능하며, 일본 도착 후 현지 구입의 경우 간사이국제공항 여행카운터, 오사카 비지티스 인포메이션 센터(난바/신오사카우메다)에서도 가능하다.

| www.surutto.com



3 DAY PASS スルッとKANSAI PASS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최초의 관영
제지장



ski

스키장

오랜 기간
운영하는
스키장이
20곳 이상!



3대온천
중 하나이며
일본 최대의
용출량

구사쓰온천

溫
온천

도쿄에서 가장
가까운 비밀상
절경이 기다리는
군마현

群馬県
군마현

www.visitgunma.jp/kr

도미오카제지장

근대유산

ski

스키장